

# 전세금 떼일라...광주·전남 임차권 등기신청 2배 증가

작년 市 1천84건·道 947건...전년비 88.2%·91.3% ↑

전문가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해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 등기정보공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천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작년 기록인 2023년의 4만5천445건보다 1천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

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천68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천317건), 인천(8천989건), 부산(5천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

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특히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

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

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천933건, 2023년 4만4천766건, 지난해 4만3천85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우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 “소비심리 더 나빠질 수도” ‘성장절벽’ 경고음 커졌다

글로벌 IB 올해 韓 성장률 전망치 평균 1.8→1.7%

끝을 알 수 없는 정국 불안 속에 한국 경제의 유례없는 저성장을 향한 대내외 경고음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제 심리 악화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환율 급등에 물가는 오르는 악순환이 눈앞에 닥치면서 1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28일 제시한 전망치(1.9%)는 물론 정부의 지난 2일 전망치(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IB 평균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말 2.1%에서 3분기 수출 감소세를 확인한 직후인 10월 말 2.0%로 떨어진 뒤 12월 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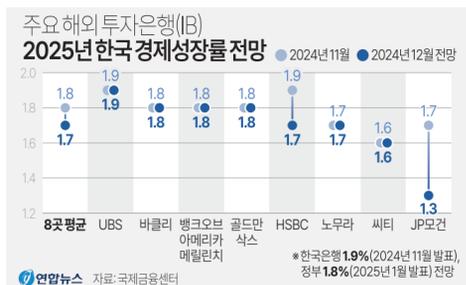
석달 연속 내림세를 탔다.

지난 한 달 사이에는 JP모건이 1.7%에서 1.3%로, HSBC가 1.9%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IB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불황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경제심리지수가 전반적으로 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올해 1월 들어서도 의미 있게 상향 반전할 것으로 보기에 아직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로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감소하는 등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후 대선 공약대로 관세를 상당 폭 인상할 경우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기도 한다.

/연합뉴스



코스피 상승...환율 하락

## 올해 소비시장 키워드는 생존·불황형 소비

상의, 5대 키워드 'S.N.A.K.E' 선정...“돌파구는 AI·K컬처”

올해 소비시장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로 생존(Survival), 차세대(Next), 인공지능(AI), K컬처,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간한 ‘2025 유통산업 백서’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S.N.A.K.E’를 선정했다.

우선 국제 경제와 소비시장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층 더 소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시장 내

생존(Survival)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Next Biz 모델) 개발과 추가 수익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과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거래(C2C) 등 초개인화된 대화형 쇼핑 등에 주목할 전망이다.

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구조를 최적화하는 등 비용 및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K컬처와 융합된 커머스도 한층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헬스&뷰티(H&B) 전문점인 올리브영은 K콘텐츠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 외국인인 한국 방문 시 꼭 들러야 하는 쇼핑 메카로 자리 잡았고, 해외 매출도 늘었다.

아울러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고조로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뉴스

## 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날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폰 16 플러스 128GB도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같은 조건에서 두 제품은 20만원 수준으로 판매됐는데, 10만~20만원가량 보조금이 늘어났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 이동 시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작년 11월 이 제품은 7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해야 했지만 2개월 사이에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작년 초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이후 하반기부터 장려금 수준이 60만~80만원 수준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아이폰 16 같은 플래그십 라인이 공짜폰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단통법 폐지안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도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